

이슈 브리핑

❶ 이슈 요약

- ◆ 중국승용차협회, EU의 중국산 전기차 최저가격 설정 조치에 따라 '28년까지 對 EU 전기차 수출 연평균 20% 성장 전망
- ◆ 네덜란드 법원, 반도체 기업 Nexperia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모회사 중국 Wingtech에 대해 조사 착수 검토
- ◆ 태국 재무부, 현지 생산 할당량을 미 충족한 중국 전기차 기업 NETA를 상대로 20억 바트의 보조금 환수 소송 진행
- ◆ 영국 BMI, '26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약 2,390만 대로 전망하고 성장세 둔화 및 주요 시장 간 양극화 가능성 제시
- ◆ 미국 NHTSA, 중국산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따라 소비자 안전 경보 발령 및 불법 유통망 단속 착수
- ◆ GM, 전기차 사업 축소, 중국 합작법인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'25.4분기에 총 71억 달러 규모의 손실 반영

◆ 중국승용차협회, 對 EU 전기차 수출 연평균 20% 성장 전망

- 중국승용차협회(CPCA) 사무총장은 '26~'28년 사이 중국의 對 EU 전기차 수출량이 연평균 약 20%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
- 이러한 전망은 최근 EU가 중국산 수입 BEV에 부과하던 최대 45%의 관세 대신에 '최저가격 설정'을 기본으로 하는 새 협상을 중국과 마무리하고, 세부 사항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
- 한편 CPCA 사무총장은 EU의 최저가격 설정 조치로 인해 향후 EU 전기차 시장이 '가격 경쟁력 우위'에서 '가치 우위'로 재편될 것이라고 언급하며, 제품 차별화가 주요 경쟁 요소가 될 것임을 강조

CnEVPost('26.1.13.) <https://bit.ly/3YFwFPe> Gasgoo('26.1.14.) <https://bit.ly/49BMZp1>

◆ 네덜란드 법원, Nexperia 모회사인 中 Wingtech 정식 조사 검토

- 네덜란드 정부가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해 중국 Wingtech의 Nexperia 경영권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*과 관련하여, 네덜란드 법원은 Wingtech의 경영 개입 및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정식 조사를 검토 중
- * 네덜란드의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가 중국산 Nexperia 칩 수출을 제한,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 리스크가 높아진 바 있음
- 향후 법원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경우 기 지정된 네덜란드 측 법정 관리인이 Nexperia에 대한 감독·통제 권한을 한동안 유지할 것이나, 조사가 기각될 경우 Wingtech가 그동안 제한된 경영권을 확보할 전망

Reuters('26.1.14.) <https://reut.rs/4aUmqOM> Bloomberg('26.1.14.) <https://bit.ly/4aYt1Y1>

◆ 태국 재무부, 중국 전기차 기업 NETA 대상으로 보조금 환수 소송

- 태국 재무부는 전기차 제조사 NETA*의 태국 법인을 상대로 '22년 이후 지급된 보조금 20억 바트(약 930억 원)의 반환 청구 소송 예정
- 이는 태국의 전기차 보조금(1대당 최대 15만 바트) 지급 요건인 '현지 생산' 할당량 미충족 및 당국의 보조금 반환 요구 불응에 따른 것
- 태국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보조금 수혜에 따른 책임 이행 및 공정 경쟁을 위한 것이며, 향후 여타 중국 제조사도 모니터링할 것임을 언급

Nikkei Asia('26.1.11.) <https://bit.ly/3NooOTD> BanxChange('26.1.11.) <https://bit.ly/3YBG4Hz>

◆ 영국 BMI, '26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성장세 전년比 둔화 전망

- 영국 시장조사기관 BMI는 글로벌 전기차(BEV+PHEV) 신차 판매를 '25년 2,070만대(전년比 +20%), '26년 2,390만대(+15.7%)로 예상하면서 '26년에는 전기차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
- 또한 '26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에 있어, 일시적 둔화 이후 반등하는 중국과 전동화 속도 조절에 나선 북미·유럽 간의 양극화 추세*를 전망

* (중국) '25년 성장률 +17% → '26년 +21%, 글로벌 둔화 속 성장폭 확대
(북미) '25년 -4% → '26년 -23%,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로 판매 급감
(유럽) '25년 +33% → '26년 +15%, 배출가스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

Reuters('26.1.14.) <https://bit.ly/45FHF2U> Benchmark('26.1.14.) <https://bit.ly/4god9TJ>

◆ 미국 NHTSA, 중국산 에어백 결함에 따른 소비자 안전 경고 발령

- 미국 도로교통안전국(NHTSA)은 '25.12월 중국산 애프터마켓 에어백*의 결함으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, 미국 내 중고차 구매자·소유주 및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소비자 경보를 발령

* 신차 출고시 장착된 순정 에어백이 아닌 사고·수리 후 교체 장착되는 에어백

- NHTSA는 해당 사고가 중국 제조사 Jilin Province Detiannuo의 교체용 에어백 팽창기 파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, 규격 미달 제품이 불법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통망 단속에 나설 예정

Reuters('26.1.15.) <https://bit.ly/49HMava> New York Post('26.1.13.) <https://bit.ly/4sYCYeP>

◆ GM, 전기차 축소 등에 따라 '25.4분기에 71억 달러 손실 반영

- GM은 미국의 정책 변화와 소비자 수요 둔화에 따른 전기차 부문 사업 축소 및 중국 합작법인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인해 '25.4분기 실적에 약 71억 달러(약 10.4조 원)*의 대규모 손실을 반영할 예정

* 전기차 생산량 하향 조정에 따른 對 공급업체 보상금(42억 달러), 유휴 설비 손실(18억 달러), 중국 SAIC와의 합작법인 구조조정 비용(11억 달러) 등

- 한편 GM은 이번 조치가 전기차 사업 포기가 아닌 재무적 조정에 초점을 둔 것이며, 미국 내 전기차 모델 12종은 유지할 방침임을 언급

CNBC('26.1.8.) <https://bit.ly/4qaixJQ> Reuters('26.1.10.) <https://bit.ly/49fZmZ8>